보건복지동향

보건복지부 보도자료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.
- 편집자 주 -

국민연금 수급자 100만명 돌파

-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금년 4월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,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5명중 1명은 공적연금 수급자임.
- 4월말 현재 연금수급자는 101만 여명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78만명, 장애연금 수급자는 4만명, 유족연금 수급자는 19만명임. 이 중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78만명으로 이는 60세 이상 인구 516만명의 약 15%를 넘으며,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수급자 18만명까지 포함할 경우 60세 이상 노인 5명중 1명이 공적연금 혜택을 받고 있음.
- 제도 시행 1년후인 1989년부터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여 1993년 사업장 가입자, 2000년 농어촌지역 가입자에게 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으며, 내년 4월부터는 도시지역 가입자에게 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함.
- 국민연금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가족 중심의 노인부양에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인 국민연금에 의한 노인부양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뜻하며, 젊은 사람들에게는 노후보장 수단으로서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.

'1588-9222' 노인학대 상담전화 개통

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5월 6일(화) 15시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화중 보건복지

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'1588-9222' 노인학대상담전화 개통식을 가졌다.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 노인학대상담센터는 전국 단일 번호를 사용하게 되며, 학대 피해를 입은 노인 또는 학대 상황을 목격한 친지나 이웃의 전화를 접수하게 되면, 가장 가까운 각 지역 상담센터로 연결, 상담 및 응급 구호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. 따라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인학대 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. 이 상담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02년 기획사업의 하나로 매년 3억 9500만원씩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.

- 노인복지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노인학대상담센터 전문위원회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노인학대 사업경험이 있는 까리따스방배종합복지관 등 11개 기관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됨. 학대 위기에 처한 노인에게 응급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원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며, 전화 접수후 사회복지사가 노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들이 인권을 회복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, 일시 피난처 제공, 의료·법률에 대한 전문 상담을 연결하게 됨.

- 노인학대란 노인의 가족 및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, 언어·정서적, 경제적으로 고통과 장해를 주는 행위를 하거나 노인에게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함. 즉, 폭행, 폭력, 감금 등 신체적 학대, 비난, 폭언, 협박 등 언어·정서적 학대, 생활비, 용돈을 주지 않는 경제적 학대,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기피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, 노령화사회로 갈수록 그 학대의 범위와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.

-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3년 1월 6일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, 우리나라 노인 3명 중 1명은 한 차례 이상 학대를 경험(37.8%)했으며, 신체적 학대보다는 정서적 학대를 많이 당한다(37.3%)고 함. 노인학대가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가족에게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참기만 하여 문제가 장기화되고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. 노인학대상담센터는 각 가정에서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당사자인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일반 시민 및 기관들과 연계하여 노인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,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- '노인학대상담센터'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상담, 일시 쉼터 연결, 노인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필요 서비스 연결, 교육·의료·법률 등 전문 분야의 전문가 상담 연결, 폭력 등으로 노인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위기개입,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,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, 노인학대예방교육, 부양자들을 위한 교육 등임.

피학대아동의 74.9%가 영·유아와 초등학생

보건복지부는 2002년도 아동학대 신고전화 '1391'을 통해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, 피해아동의 74.9%가 11세 이하의 아동이며, 작년에 비해 방임형 아동학대가 다소 증가했다고 밝혔다.

- 2002년에 전국의 17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전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,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2,478건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 25.9%가 학대를 중복해서 받고 있었음. 이를 각 유형별로 세분하여 집계한 아동학대 사례 총 누계 3,660건 중 방임이 36.3%, 신체학대 28.4%, 정서학대 26.3%, 유기 5.8%, 성학대 3.2%로 각각 나타남. 중복학대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.
- 피해아동의 남녀 비율은 남아 53.8%, 여아 46.2%로 남아에 대한 학대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. 연령에 있어서는 만 9~11세의 아동이 25.3%, 만 6~8세 24.4%, 만 12~14세 17.3%, 만 3~5세 16.1%의 순으로 나타남. 특히 11세 이하의 아동이 피해아동 전체의 74.9%를 차지하여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들이 무기력하게 학대상황에 방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.
-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, 친부에 의한 경우가 57.8%, 친모에 의한 경우가 22.2%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80%를 차지함.
  -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,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17.9%, 자녀양육지식 및 기술부족이 12.9%로 높게 나타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자녀 양육 및 기술 등에 대한 부모교육이 절대적으로 요구됨.
  -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으로는 모·부자 가정이 48.0%로 일반가정 25%보다 높아 모·부자 가정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서비스 강화가 필요함.
- 2,478건의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해 2,519건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, 그 중 원가정 보호가 48.6%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음. 이는 부모교육 및 학대행위자의 교육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음.